



《켄타우로스의 비평》 쓴 김형중 인터뷰

또 반쯤은 '왜'를 다룰 줄 아는 사회학적 비평가 말이  
 주의려라. 꼭 반반이다. 합리적인 타협의 여지는 없  
 그가 왜 흡물잔 없이 '꼭 반반'이라고 걸 쓴 것은 그에 대해  
 두고두고 생각해볼 일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가능한  
 이렇게 잘 반반적 다룬다. 켈타우로스적 비평가로서의 노력을  
 그러나 이 책자가 전반적으로 발표한 소설 집안 구성  
 관 권의 정도로 풀어놓고 보니 굉장히 12%의 연관성을  
 켈타우로스적 타협을 해 줄 것인 지가 있는  
 지난 10년에 200권이 넘는 책이 나와  
 문학에 대해 있는 의미를 밝히기  
 연관성을 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모양새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물어 다뤄야 할 것이다



난처하다. 적지 않은 책을 섭렵한 독자에게 김형중 (36) 씨의 평론집 《켄타우로스의 비평》을 밀어 놓겠다. 그리고 앞서 밝힌 짧은 독후감을 되물겠다. 난처한가? 대개의 독자들은 ‘그렇다’고 고개를 주억거릴 것이다. 평론집의 미덕이 ‘재미라고는 없음’인 줄 알았는데, 대상으로 삼은 작품보다 김씨의 평론이 더 유쾌하다! 난처함의 까닭인즉, 자세 고쳐 잡고 엄숙하게 읽던 평론이란 장르에 대한 모종의 배신감 때문이요, 느닷없는 ‘낭만자객’의 기예에 입담을 자랑하는 작가들이 기가 질러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김씨는 등단 무렵 “평론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평론도 분노할 수 있고, 평론도 울거나 웃을 수 있음을, 말하자면 평론에도 표정과 리듬이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평론집 《켄타우로스의 비평》으로 너끈하게 증명한 셈이다.

“무미건조한 글은 생래적으로 못 쓰는 편입니다. 적대적이기까지 하지요. 비평을 창작에 대한 부수적인 언술행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편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겐 비평도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부연하자면 문학에 대한 글이긴 하되 그 자체로도 문학적인 글쓰기만이 제대로 된 비평이라 믿고 있습니다. 작가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문장을 읽고 이것은 신경숙, 이것은 이문구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김형중표’ 문장을 갖고 싶습니다.”

‘김형중표’ 문장만이 번뜩였다면 난처할 일은 없었을 테다. 김씨는 ‘객관’과 ‘엄밀’이라는 비평의 제1계명을 잘 알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은 사람 반은 말(馬)인 반인반수 半人半獸 ‘켄타우로스’를 제목으로 낙점한 것은 비평정신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반성 혹은 자기갱신의 의지다. 김씨는 서문에서 “공평을 기하자면 켄타우로스적 비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반쯤은 ‘어떻게’를 다룰 줄 아는 형식주의적 비평가이고 또 반쯤은 ‘왜’를 다룰 줄 아는 사회학적 비평가 말이다. 주의하라. 꼭 반반이다. 합리적인 타협의 여지는 없다”라는 ‘프랑코 모레티’의 말을 맨 앞줄에 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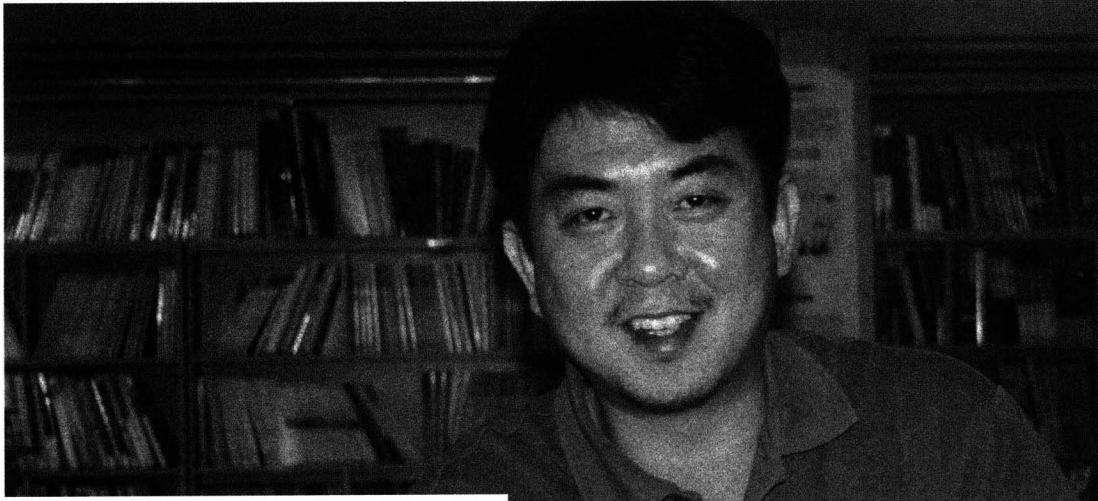
“제 문맥에서 해석하자면, 프랑코 모레티의 말

은 편편내용주의에 대한 경계로 읽혔지요. 오늘 한국의 비평은 형식을 다루는 데 인색하거나 서툰니다. 작가의 의도, 인물론, 주제론 등을 맴도는 경우가 많죠. 제 견해입니다만, 사회적인 변화는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주제, 즉 내용과는 무관하게 작품의 형식에 ‘각인’됩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과해 온 변화의 진폭 역시 작품의 형식에서 발견되지요. 하성란의 도상에호중(평론가 황종연의 표현), 김경욱의 영화적 문법, 성석제의 전자류 이야기체, 배수아의 무국적 무성별 문체 등이 다 그렇습니다. 내용만 분석해서는 이들 작품의 진면목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식에 함몰되어서는 또 안 되겠지요. 형식주의적 비평과 사회학적 비평의 공평을 기하는 켄타우로스적 비평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김씨는 반인반수 켄타우로스의 존재가 비평가의 운명을 연상시킨다고도 말한다. 창작과 이론, 그 둘을 아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비평이고 보면, 켄타우로스만큼 어울리는 대상도 없다.

신화에 대한 김씨의 애정은 평론집 곳곳에서 확인된다. 올림푸스의 이성신들에 대적한 ‘마르시아스’를 통해 심상대(심상대는 현재 ‘마르시아스심’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다)의 작품을 분석한 <마르시아스를 불러오기 위한 열한 개의 단장>, 뱀들의 사랑을 방해한 벌로 여성의 삶을 살았던 ‘테이레시아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을 말하는 데 있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앞서 고찰한 <집 나가는 여자들>, 게다가 <과장되게 여신을 찾다>에서는 ‘칼리메두사’ 등의 여신들을 불러내는 것도 모자라, 작품의 등장인물을 ‘제 몸 속에서 신성을 잃어낸 어린 여신’으로, ‘언어 이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무신’으로 명명命名하기까지 한다. 김씨는 “알튀세르식으로 표현하자면 문학은 ‘막대 구부리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존재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현실이 얼마나 비루한 것인가를 일깨우고, 그래서 1밀리미터라도 현실이 그 세계를 향해 건인당하게 하는 신화는 매력적인 현실비판의 도구”라고 말한다.





한편 신화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만교의 《머꼬네 집에 놀러올래?》의 ‘머꼬네’를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의 ‘마콘도’와 겹쳐 읽는가 하면, 성석제 소설의 능청을 뻔히 눈뜨고도 속는 ‘마술’이란 장치로 바꿔 분석하기도 한다. 권지예와 송기원의 소설에 등장하는 요리를 다시 구워삶아 요리에도 ‘시학’이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는 지루해진 ‘후일담’을 꺼내놓고 여성 소설에 빈번히 등장하는 ‘집 나가는 여자’들의 가출이유로 지목하기도 한다. “공간검사 비트 파는 소리 하네. 북한에는 김정일, 남한에는 장정일이지. 문학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이라는 김연수의 문장에 밑줄을 긋고 주저 없이 <개그콘서트>의 ‘옥동자’를 언급하기까지 하는데, 여기에 이르면 엄숙한 평론이란 없다. 작품과 덩굴며 돌아보자는 발칙한 제안을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미련 없이 돌아서기 전에 김씨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진중한 해석은 유희 끝의 아쉬움인 듯 치받칠 것이니, 모쪼록 긴장하며 즐기자는 말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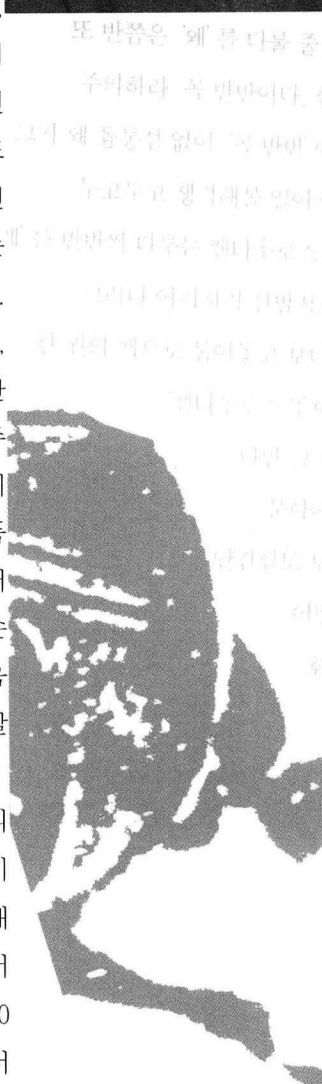
“젊은 작가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이전의 유명짜한 평론가가 그랬듯이 세대론의 힘을 빌려 이름 좀 얻어 보려는 전략 아닌가, 묻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동 세대거나 직후 세대여서 그들의 감수성이나 세계관에 친숙한 편입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의 중견 작가들에 대해서는 거론한 평자들이 많습니다. 브레히트 식으로 말하

자면 ‘좋은 옛 것들’ 보다는 ‘무모한 새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위험부담은 떠안아야 하겠지만요.”

김씨가 떠안은 위험부담은 보람이 되었다. 김씨가 주목한 젊은 작가들은 이제 문단의 주변부가 아니다. 사회·정치 영역에서 포스트 386세대들이 강력한 동력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는 김씨는 젊은 작가들을 한국소설의 전위이자 미래라고 격려한다.

그러나 김씨의 격려는 비평 밖의 것. 비평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작품비평에 거침이 없는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이 ‘당대’의 의식주를 떠나게 되면 반쯤의 실패는 애초부터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충고는 송기원을 포함한 최근 리얼리즘 소설들을 향한 것이며, ‘탐구’에 바치지 못한 채, 원망의 충족으로 이끌려가도록 방치해 둘 때가 많았다는 충고는 심상대를 향한 것이다. “소설답게 독자를 깊은 생각에 빠뜨려놓는 글”을 원했지만 ‘깊은 생각’에 빠진 독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이만교를 향한 것이며, 마술이라는 신비로운 유희에 감동했지만 효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는 충고는 성석제를 향한 것이다. 격려가 후하면 비판도 매섭게, 기울기 없는 균형, ‘반드시 반반’이다. 주례사 비평이 지목되는 오늘, 《켄타우로스의 비평》이 갖는 또 하나의 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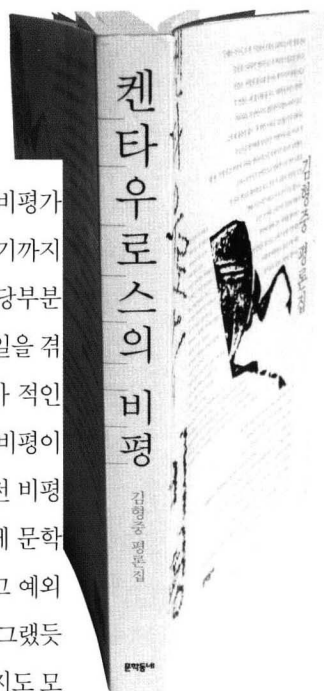
“저 역시 주례사 비평가로 지목되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지면으로 등단한 신인작가



의 인터뷰 기사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주례사 비평가란 소리를 들을 때는 억울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했지요. 문학권력 비판론자들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조하기도 했고 궁금해하기도 했지만 그런 일을 겪은 이후론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더군요. 주례사 비평이 비평의 위기를 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 비평의 위기는 예견된 것입니다. 문학의 위기 앞에 문학 행위이자 문학에 대한 언술행위인 비평이라고 예의는 아니겠죠. 아도르노 시대의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통속이나 도피냐의 이분법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평의 방법론도 형식과 내용이 반반, 작품에 대해서도 격려와 비판이 반반, 켄타우로스의 역할에 충실한 김씨가 공평을 기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었으니, 남성작가에 대해 무게중심을 더 두고 만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문학의 중심은 신경숙 공지영 김인숙 등 1963년생 여성작가들을 중심으로 계보를 잇듯 이어진 여성작가들이었다는 지적에 김씨는 의도는 없었다고 손사래를 친다.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 중에는 여성작가들이 많은 편이며, 몇 가지 이유로 실지는 못했지만 여성작가들에 대한 평문도 쌓여 있다는 김씨는 “아내가 웃겠지만 나름대로 페미니스트이고자 노력한다”고 명쾌하게 대답을 갈무리한다.

김씨 비평의 자양분은 ‘청년글방’에서 비롯되



었다. 청년글방은 김씨가 광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문·사회과학서점이다. 청년글방 대표노릇 이전 김씨는 십여 년 동안 그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단골손님이기도 했다. 청년글방 한쪽에 마련된 세미나실에서 김씨는 신화와 미학을 공부했고, 대표를 맡고 있는 요즘에도 하루 네 개 정도의 세미나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있다. “망해가는 인문·사회과학서점에서 이들과 함께 한 공부가 아니었다면 내 글 중반은 썩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서문의 글은 겸손 혹은 과장이 아니다.

“청년글방 운영은 물론 잘 안됩니다. 인문·사회과학적 교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견디고 있지요. 월말마다 출판사 영업직원들을 만나는 게 미안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운영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청년글방의 책으로, 청년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폴 오스터에게 ‘빵굽는 타자기’가 있다면 김씨에겐 ‘밥을 짓는 청년글방’이 있다. ‘밥벌이의 지겨움’을 토로할 법도 한데 김씨는 함구한다. 먹고 사는 일에 소용되는 ‘밥’과 글쓰기에 소용되는 ‘밥’을 동시에 ‘짓는’ 공간이 청년글방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공평을 기하는 켄타우로스적 서점이 된다면 좋겠지만, 글쓰기에 소용되는 밥만 푸지게 지어준다 해도 괜찮다. 김씨에게는 읽고 쓰는 일이 아직까지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김씨의 평론이 재미있는 이유는 ‘낭만자객’ 김씨의 기예보다, 기예를 다루는 마음이 먼저 작용해서가 아닐는지.

《켄타우로스의 비평》을 내밀며 김씨에게 “당신은 왜 그리 유별난가”하고 물을 이유는 없다. 그 자체로 유별난 반인반수 켄타우로스의 숙명을 이미 짚어지고 있지 않겠는가.

‘엄정’과 ‘재미’라는 잘 버려진 두 날의 검을 가진 반인반수 낭만자객이 걸어간다. 엄숙하게? 절대 그럴 리 없다. 반은 사람이요, 반은 말이니 엄숙하게 걸어보려 하나 유쾌하게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김씨의 모습을 상상하자면 다시 한 번 이 말을 거듭 할 수밖에 없다. 거참, 난처하다. ■

취재 박용두기자